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과 실천

한국어문학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과 '열린 공공성'의 지향

장문석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한국현대문학 전공

andonghakin@gmail.com

- I. 서: 한국학 연구자의 지식공유 선언
 - II.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과 실천
 - III. 한국학 지식공유의 새로운 지평과 쟁점
 - IV. 결: 한국학의 '열린 공공성'을 향하여
-

I. 서: 한국학 연구자의 지식공유 선언

2019년 8월 29일 인문사회계열 40여 개 학술단체와 독립 연구자 등이 모여서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선언했다. 인문사회 계열의 연구자들은 이날 선언에서 경쟁과 성과주의에 매몰된 연구 환경을 성찰하면서 학술지식의 공공적 가치를 다시금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재단 등재지 수록 논문의 정형화된 글쓰기, 실천성 및 담론 생산성을 잃은 학회 활동, 나아가 비정규직 및 후속세대에 대한 착취 구조를 허용하는 연구자의 무관심을 반성했다.¹

이날 연구자들이 모여서 학술지식의 유통 과정에 대해 발언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해 1학기 초 국내 상용학술정보업체의 구독료 인상이었다. 상용학술정보업체의 구독료 인상으로 국공립대학 도서관 10곳은 구독 계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했는데, 이로 인해 해당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논문 열람에 큰 곤란을 겪었다.² 2000년 전후 한국의 학술논문은 웹환경을

※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간행실이 주관한 제1회 학술지식공유 심포지움 <디지털 인문학,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공유 및 확산>(한국학중앙연구원 및 온라인 화상회의실, 2021.10.15.) 및 인문학과지식공유연구회 심포지움 <인문학과 지식공유: 시민 참여 모델의 개발>(제주 아모텍스리조트 및 온라인 화상회의실, 2021. 12.18.)에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학술지 『상허학보』와 『여성문학연구』 오픈액세스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학 지식공유의 쟁점에 대해 값진 토론을 이끌어 주신 반재영 선생님(고려대), 이해령 선생님(성균관대)께 감사드린다.

- 1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 <https://knowledgecommoning.org/manifesto/>(검색일: 2023.11.1.).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문학 전공 학회 20개, 문헌정보 전공 학회 7개와 역사학, 사회학, 지리학 전공 학회와 학술단체협의회, 민교협,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인문학협동조합, 연구자의집 등 다양한 성격의 학술단체 및 기구들이 모였다.
- 2 대학과 상용업체와의 계약결렬은 2019년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2016년에도 있었던 일이다. 2019년 초반 국립대학과 상용학술정보업체의 계약 결렬에 따른

기반으로 유통되었는데, 기존에 간행된 학술지 논문의 전자파일(pdf) 제작 및 학술정보 메타데이터 정리, 플랫폼 구축 등 학술지식 유통 구조의 재편은 국내 상용학술정보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학술지식의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연구자는 학회에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해야 했고, 학회는 상용학술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여 년간 웹에서 논문 형식의 학술지식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독과점한 상용학술정보업체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다. 연구재단 역시 현재의 유통구조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³

상용학술정보업체는 학술논문을 유료로 유통했고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내려받아야 했다.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 도서관과 공공기관 역시 상용업체와 계약을 맺었다.⁴ 연구자들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 도서관 및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논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곳을 통하지 않거나 소속이 사라질 경우, 자신의 논문을 업체의 플랫폼에서 내려받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했고, 학회는 상용업체와 배타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⁵

학술지식 접근 곤란에 관한 경험적 기술은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생산과 공유에 대하여」, 최현·장훈교·윤여일·박서현(편), 『공동자원의 영역들』 (과천: 진인진, 2019), 250~251쪽 참조.

- 3 최근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 및 지원지표에 오픈엑세스 항목을 추가했다. 하지만 향후 오픈엑세스 전환 약정뿐 아니라 국내 상용학술정보업체의 플랫폼을 통한 논문 공개까지를 오픈엑세스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오픈엑세스로부터 후퇴한 효과를 가진다.
- 4 학술논문을 과점하는 상용학술정보업체는 초기에는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학술지식을 제공했으나, 상용업체가 제공하는 플랫폼과 DB의 위상이 공고해지는 순간, 구독료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정경희, 「국내 학술지 웹 DB 구독료 현황과 오픈엑세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2008), 367~370쪽.
- 5 저작권 양도 역시 2000년대 초반 논문의 온라인 유통구축 과정에서 상용학술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학회가 논문의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계약이

학술지가 온라인으로 배포되면서 상업출판사 및 유통사에 의한 독점공급과 가격 인상, 그것을 가능하도록 한 저작권 양도 문제 및 공공성 침해 등이 얽혀 있는 학술지식 유통의 현상을 ‘학술지의 위기(serials crisis)’로 진단할 수 있다.⁶ 2019년 봄 도서관과 상용업체의 계약 결렬과 이로 인한 논문 열람의 곤란은 현재 학술지식 유통구조에서 연구자가 지식의 생산자임에도 스스로 생산한 지식의 유통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을 드러냈다.

그 전까지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의 생산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생산 이후 지식의 유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간의 무관심을 성찰하게 되었다.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들은 지식 유통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8년

가능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KCI 사이트 역시 학회가 학술지 논문의 원문 전면공개를 요청할 경우 학회에 저작권 양도의 명문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양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거나 실제로 회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학술지는 1/3 정도에 불과했다. 정경희·김규환,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4)(2016), 274~276쪽; 박숙자·이혜령·장문석, 「OA라는 형식이 학회에 제기한 질문 - 지식공유 대담(1)」, 『상허학보』 60(2020), 787~789쪽. 한국어문학 전공의 학회 대부분 역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논문 저자로부터 저작권 양도를 받고 있다. 일부 학회는 저작권 양도 동의를 받지만, 적지 않은 학회는 투고 시 자동으로 저작권이 양도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중서사학회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OA(Open Access)로 출판되며, 저작권(복제권 및 전송권)은 온라인 출판에 한하여 학회로 양도된다. 본 학술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는 저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라고 명기하여, 온라인 출판에 한하여 저작권(복제권 및 전송권)을 한정적으로 양도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6 정경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과정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2020), 206쪽. ‘학술지의 위기’라는 개념이 제안된 맥락에 대해서는 Theodore C. Bergstrom, “Free Labour for Costly Journal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5, No. 4(2001), pp. 183-198; Carl T. Bergstrom, & Theodore C. Bergstrom, “The Costs and Benefits of Library Site Licenses to Academic Journal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01, No. 3(2004), pp. 897-902.

4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엑세스 출판 선언’(2018년 4월 20일)을 발표하고 2019~2023년에 걸쳐 학술지 출판을 오픈엑세스(Open Access)로 전환 중이었던 문헌정보학 7개 학회 및 연구자, 지식공유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 및 철학 전공자 중심의 ‘연구자의 집’ 연구자도 참여하면서 논의의 주체 및 쟁점이 증가했다. 2019년 8월 연구자와 학회의 선언은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의 자기 성찰, 문헌정보학 학회 및 연구자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천적 경험, 그리고 ‘연구자의 집’이 제시하는 지식공유의 이론과 활동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진행되었다.⁷ 인문사회 계열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주목한 학술지식의 대안적 유통 방식은 오픈엑세스였다.

오픈엑세스는 2002년 2월 14일 발표한 ‘부다페스트 오픈엑세스 선언(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에서 제창한 이념이자 방법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연구 문헌의 읽기, 내려받기, 복사, 배포, 인쇄, 검색, 링크, 색인 및 데이터화에 재정적, 법적, 기술적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다.⁸ 한국에서 학술논문의 오픈엑세스는 20년 간 한국의 인문사회 학술지식이 상용학술정보업체의 과점 구조 외부에서 지식의 공유를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상용학술정보업체가 통제된 제한적 학술지식 유통을 성찰하면서, 논문 형식의 학술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여 지식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엑세스는 한국사회에서 학술지식의 유통을 재편하는 실천인 동시에 기존의 학술체제 및 연구자문화에 대한 반성과 재구조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7 박배균·박숙자·정경희·천정환·박서현, 「지식공유운동의 현재와 미래: 지식공유 대담(2)」, 박서현·정경희(편), 『지식을 공유하라』(서울: 빨간소금, 2022), 280쪽에서 박숙자의 언급 참조.

8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2002.2.14.).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검색일: 2023.11.1.).

선언 이후 인문사회 계열의 학술지 일부는 실제 오픈액세스로 출판을 전환했고, 학회 및 연구자의 선언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지식공유연대)'라는 학술단체 및 연구자 연대 체로 확대 및 개편했다. 또한 학회 및 연구자들은 지식공유연대를 매개로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공공 기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도 협의했고 각 기관은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일정 정도 지원했다. 2021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등 국내 주요 연구지원 및 공공학술정보기관 6개는 「오픈액세스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이 그 사례이다.⁹

무료 접근을 넘어서 CCL 적용을 통해 자유로운 재사용이 가능한 학술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기준 의약학 분야 76%(188종), 자연과학 분야 38%(43종), 공학 분야 35%(76종), 농수해양 분야 30%(42종)인 반면, 복합학 분야 9%(8종), 사회과학 분야 3%(20종), 예술체육 분야 5%(6종), 인문학 분야 1%(6종)이었다.¹⁰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오픈액세스의 비율이 타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2019년 인문사회계열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에 대한 선언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현재 한국어문학 학회 중 온전히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학술지는 선언 직후에 준비를 하여 2020년 상반기에 전환을 마무리한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여성문학연구』, 대중서사학회의 『대중서사연구』,

9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주요 학술정보기관 오픈액세스 공동 선언 추진」(2021. 8.17.),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id=39768&schBcid=normal0302>(검색일: 2023.11.1.).

10 정경희, 「KCI 등재지의 CCL 적용 현황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2)(2023), 240쪽. 2017년의 학문 분야 별 CCL 적용 현황을 김규환·정경희,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3)(2017), 260쪽.

상허학회의 『상허학보』 등 3종에 머물러 있다.¹¹ 여전히 많은 한국어문학학회는 상용학술업체와의 계약을 유지 및 갱신하고 있으며,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일부 논문 및 권호만은 KCI를 통해 공개하는 데 머물러 있다. 오픈엑세스 전환의 정체는 한국어문학 분야 학술지 및 연구자들에 오픈엑세스와 지식의 공공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요청한다.

이 글은 한국에서 학술지식의 공유라는 문제가 제시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오픈엑세스 전환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선행 문헌의 성과와 공명하면서¹², 한국어문학 학술지 3종의 오픈엑세스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학 지식공유의 쟁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오픈엑세스 전환 과정에 대한 세밀한 고찰은 일차적으로 오픈엑세스 전환과정에 대한 경험 및 그 실무 과정에 대한 공유이며, 동시에 한국어문학 분야를 둘러싼 학술지식 유통 및 그 구조의 쟁점을 예각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 글의 II장에서는 한국어문학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과정을 통해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과 실천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한국어문학 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과정을 통해 발견한 한국학 지식공유의 새로운 지평과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1 2019년 선언 이후, 2021년 역사학 및 문학, 사회학 등 여러 학제의 연구자가 활동하는 만주학회의 『만주학보』가 2021년 오픈엑세스 출판으로 전면 전환했고, 2022년 8월 심리학 전공 16개 학술지가 오픈엑세스로 전환했다.

12 인문사회계열 학술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여성문학연구』, 『상허학보』의 오픈엑세스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를 참조할 수 있다. 정경희, 앞의 논문(2020); 이해령, 「한국여성문학학회, OA 이렇게 한다」(2020.7.17), 지식공유연대 창립총회. <https://knowledgecommoning.org/%ec%a7%80%ec%8b%9d%ea%b3%b5%ec%9c%a0%ec%97%b0%eb%8c%80-%ec%b0%bd%eb%a6%bd%ec%b4%9d%ed%9a%8c2020-07-17-%eb%b0%9c%ed%91%9c%ec%9e%90%eb%a3%8c/>(검색일: 2023.11.1.); 반재영·김유동·장문석, 「상허학회는 Open Access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A 실무, 서른일곱 걸음」, 『상허학보』 60(2020).

II.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과 실천

학술지와 논문은 학술장 내부의 정보 교환 및 소통을 위한 형식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출발하여 이후 인문학 및 사회과학을 그 형식이 확산되었다. 1920년대 중후반 경성제국대학의 등장은 분과학문의 제도화에 근거하여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기본구조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조선인은 경성제대 운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재생산의 계기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조선인의 지식활동은 일본어와 조선어의 위계 아래에서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¹³ 해방 이후에는 미국식 대학 제도의 도입으로 학술제도가 재편되고, 대학 연구소 및 학회가 설립되었으나, 학계의 영세한 규모 및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계 내외 몇몇 학술지를 제외하고 학술지 간행은 아주 활발하지 못했다. 학술환경이 변화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민주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학술적 시각을 지향하는 학술단체가 만들어졌고 학술지도 새로 창간되었다. 분과 학문별로 많은 학회와 학술지가 생겨났고, 대학 및 정부의 연구비 유입도 증가했고 교수연구업적 평가역시 강화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창립을 기점으로 한 대형학술과제 및 학술지 등재제도의 도입은 연구재단이 제시한 단일 기준 아래, 학회 및 학술지가 증가하고 세분화되었다.¹⁴

한국어문학 분야는 한국어 및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학술 영역으로 전국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및 한국어문학과, 교양학부 등을 제도적 기반으로

13 류준필,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그 지정학적 함의: 자국(문)학 형성의 맥락에서」, 『한국학연구』 32(2014), 108~122쪽; 홍종욱,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역사학보』 232(2016), 298~301쪽.

14 서호철, 「학회 없는 학술지, 포괄적 한국학의 꿈: 『한국학보』의 경우」, 『사이間SAL』 20(2016), 51~62쪽.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한국어문학 분야 등재지는 97종이다. 한국어문학 분야 학술지식의 특징으로 (1) 한국어 학술지식 생산이 활발하고 중심이라는 점, (2) 한국에서 간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는 점, (3) 연구자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술지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과 (2)는 한국어문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관련된다. 한국어 및 한국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문학 분야에서는 해외 대학원보다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연구자가 많으며, 학회 및 연구자의 수 또한 해외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심적인 학술활동의 언어 역시 한국어이다. 한국어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는 대부분 한국의 학회에서 출판하며, 그 학술지는 대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관리된다. 한국어문학 분야의 학술지식은 한국연구재단의 KCI 제도와 상용학술정보업체의 유통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3)은 한국어문학 분야의 학술적 특징 및 학술활동의 역사와 연관된다. 한국어문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한국어학, 한국고전문학, 한국현대문학으로 구분한다. 1950년대부터 창립된 한국어문학 분야의 학회는 두세 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학회와 하나의 영역 혹은 그 세부의 전공에 따라 다양한 연구영역의 학회가 공존하며, 전국, 지역, 학교 단위의 다양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¹⁵ 한국어문학 연구자 수가 타 분야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15 국어국문학회(1952년 창립)는 한국어학, 한국고전문학, 한국현대문학 세 영역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종합학회이고, 한국어문학회(1956년 창립)는 역시 세 영역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종합학회이다. 반고어문학회(1981년 창립) 역시 종합학회인데 성균관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민족문학사연구소(1990년 창립)는 한국고전문학 및 한국현대문학 전공의 두 영역 연구자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학회이며, 한국문학회(1977년 창립)는 역시 두 영역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부산경남 지역의 학회이다. 한국고전문학회(1970년 창립)는 한국고전문학 영역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전국 단

전통과 고유성을 가진 학회의 수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연구자 한 명은 여러 학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 학술 활동에 참여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한국어문학 역시 다른 인문학 및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국가-자본-테크놀로지라는 '지배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구조 내부에 위치하며, 대학 및 연구자는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며, 학계는 생산한 지식이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침묵의 공장'에 머문다는 성찰적 진단이 제시되었다.¹⁶ 현재 한국어문학 학회는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자기 이해에 따라 각자 도생만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진단을 피하기 어려우며, 한국어문학 연구자 역시 다른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속화된 학계'의 상황 아래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학술지식의 위치와 의미를 충분히 성찰하기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¹⁷

대규모 영리출판사가 학술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학술지의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며, 해외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를 동시에 구독하는 국내 대학 도서관 구독료의 90% 이상은 해외 학술지의 몫이다.¹⁸ 하지만 이 글은 한국어문학 분야 학술활동의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국내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에 논점을 집중하고자 한다.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과정의 주요한 쟁점은 (1) 오픈액세스 전환 주체의 문제, (2) APC 등 출판비용 확보 방안, (3)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 (4) CC 라이선스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5) 학술지 플랫폼 등으로, 학회

위의 학회이며, 한국고전문학의 세부 영역의 전공에 따라 창립된 전국단위의 학회인 한국시가학회, 한국구비문학회, 한국고소설학회, 한국한문학학회 등이 존재한다.

16 강명관, 『침묵의 공장』(서울: 천년의상상, 2013), 11~18쪽.

17 박배균 외, 앞의 논문(2022), 286~287쪽에서 천정환의 언급; 강수영·김보경·유현미·이송희·조승희·전준하·현수진·이우창, 『한국에서 박사하기』(서울: 북저널리즘, 2022), 151~155쪽에서 유현미의 언급.

18 권재현, 「학술지 시장의 경제적 구조와 국내 오픈액세스 운동」, 『법경제학연구』 17(3)(2020), 529~530쪽.

단위의 구체적인 실무로부터 공공기관 및 국가 단위의 정책적인 차원까지를 문제의 영역이 걸쳐 있다.¹⁹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 역시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전환 과정에서 이 쟁점들을 마주했고, 학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위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픈엑세스 출판이라는 실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는 “그동안 우리가 묻지 않았던 질문”을 다수 발견했다.²⁰ 그간 논문의 생산에 관심을 쏟았던 한국어문학 연구자들은 오픈엑세스 전환을 통해 논문 유통 및 그 과정에 개입하는 학회, 한국연구재단, 상용학술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주목했다. 오픈엑세스 전환은 한국어문학연구자의 시각을 논문이라는 형식의 학술지식의 생산 및 유통 전반으로 확장한 것이다.

1. 지식공유의 이념: 학술지식의 공공성 재인식

한국어문학 전공 학회는 오픈엑세스 전환 이전에 학회 내부에서 학술지식이란 무엇인지 논의했다. 학회 이사회는 논문 유통구조에 대한 진단과 오픈엑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의제를 설정 및 논의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회원 전체에 공람하여 의제를 확산하고, 회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논제를 구체화했다.²¹ 논제 확산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은 학계의 관행을

19 이재운·정경희, 「해외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 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3)(2020), 301~326쪽; 정경희·이재운·정은경·최상희, 「한국연구재단 오픈엑세스 정책 실행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4)(2020), 255~286쪽 참조.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 박숙자 외, 앞의 논문(2020), 767~779쪽; 반재영 외, 앞의 논문(2020), 775쪽에서 박숙자의 언급.

21 오픈엑세스 결정에 앞서서 한국어문학 분야 학회가 마주했던 상황 및 학술지식의 공공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과정, 나아가 그 문제의식을 여러 공지 및

검토하는 것인 동시에 연구자 개인이 막연히 “느꼈던 이상함 혹은 부당함이 사소하지 않”으며 그러한 “감각을 출발점 삼아 학술장의 생태계를 진단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실천이 가능하고 중요함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으며, “학술지식을 둘러싼 권력과 습속, 연구(자) 문화의 제도와 관행을 묻는 물음”이었다.²²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의 성격을 커먼즈(common)로 규정하는 시각에 공명하면서²³, 연구자가 학회를 통해 생산하는 학술지식을 공공재(public goods)로 이해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을 모두 만족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학술지식은 여러 사람이 접근하더라도 그 가치가 동일한 학술논문은 여럿이 본다고 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합성을 갖춘 재화이다.²⁴ 다만 학술지식의 비배제성은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상용학술정보업체가 유통을 과점한 현실적 상황에서 학술지식은 학교 및 도서관 등 특정 기관 소속 이용자에게는 충분히 공급되지만, 해당 기관 이외의 사용자에게는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클럽재(club goods)의 성격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²⁵ 이러한 쟁점을 앞에 두고 한국어문학 학회

학회원 의견 회신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박숙자 외, 앞의 논문(2020), 767~779쪽; 반재영 외, 앞의 논문(2020), 795~811쪽 참조.

- 22 강수영 외, 앞의 책(2022), 182~183쪽에서 김보경의 언급; 박숙자, 「학술지식은 커먼즈다: 지식공유연대와 OA 플랫폼」, 『문화과학』 101(2020), 204쪽.
- 23 박서현, 앞의 논문(2019);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생산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9(1)(2020a);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공유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1(2)(2020b); 박서현, 「지식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의 사회적 가치: 열린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 『상허학보』 60(2020c).
- 24 엘리너 오스트롬·살렛 헤스(편), 김민주·송희령(역), 『지식의 공유』(서울: 타임북스, 2010), 35쪽.
- 25 2019년 봄 대학 도서관 및 상용학술정보업체의 협상결렬은 학술지식이 현실적으로 클럽재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심사위원

및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을 클럽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판단했다. 학술지식은 비경합성을 가지는 재화일 뿐 아니라, 그것은 비배제성의 이념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식을 공공재로서 이해하는 관점에 따르면, 지식의 생산은 다른 지식의 소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생산과 소비는 연결되어 있다. 연구자 개인이 생산한 지식은 사회적 협동의 결과로 생산된 기존의 지식이라는 공동의 부(富)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 공동의 부를 증진해 간다. 이 점에서 지식은 사회적 협동에 기반한 공유화된 자원, 곧 커먼즈(communs)라고 할 수 있다.²⁶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들은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했다. 학술지식은 선행 학술지식의 토대에 기반하여 생산되어 새로운 학술적 의미를 탐색하고 해당 학술영역의 지식이라는 공동 부의 증진에 기여한다. 편집위원의 회의 및 의견 제시·교정, 심사위원의 심사서 작성, 출판사 편집자의 편집, 편집간사의 그림자 노동 및 총무부의 행정 업무라는 협동 등의 결과로 논문은 출판된다. 특히 학술대회 발표문에 근거한 논문이나 편집위원회가 투고를 요청한 특집논문의 경우, 학술대회 기획위원의 학술적 의제 설정, 학술대회 지정토론자 및 청중의 비판적 의견, 특집 주제를 제시한 편집위원회의 기획 등이 더해진다. 학술지의 논문은 개인의 작업이면서 여러 연구자의 협동에 근거하여 생산된 지식이다. 학술지의 논문은 학회, 나아가 학계라는 공공적 공간에 위치하는 동시에 개별적이면서 소통 가능한 공공성을 특징으로 가진다.²⁷ 학술지식의 생산 과정은 여러 연구자가 참여하는 공동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6 박서현, 앞의 논문(2019), 259~260쪽.

27 공공성에 관해서는 사이토 준이치(저), 윤대석·류수연·윤미란(역), 『민주적 공공성』(서울: 이음, 2009), 63~78쪽 및 113~118쪽을 참조하여 서술했다.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료가 있는 공동체’라는 학계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²⁸

오픈액세스 전환에 대해 수렴된 회원 의견 가운데, 학술지식은 사회적 협동으로 생산되어 공공성을 가지에 “무료로 공개하여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²⁹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들이 학술지식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논문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저 역시 현재는 대학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롭게 논문을 열람하고 있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임용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소속이 없었던 4개월여 동안에는 유료로 논문을 구입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연구실적이 필요하고, 활발히 연구활동을 해야 하는 시점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상당한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허학회가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데 뜻을 하고, 지식공유연대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OA추진을 위한 학회의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소속이 불분명해지면, 저는 또 다시 소비자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³⁰

한국어문학 연구자들은 현재의 유통구조가 가진 학술지식의 ‘제한성’으로 인한 논문 열람의 곤혹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술지식이 ‘비배제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나아가 공공재로서 학술지식을 재인식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지원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28 강수영 외, 앞의 책(2022), 114~116쪽 및 229~231쪽에서 이송희의 언급 참조.

29 반재영 외, 앞의 논문(2020), 800쪽에서 상허학회, 「현행 논문 유통 구조와 Open Access」(공지사항, 2020.4.6.).

30 반재영 외, 앞의 논문(2020), 805쪽에서 상허학회 회원의 회신. 이하 인용문의 밑줄은 인용자.

업체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개선하려면 업체에 대한 비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논문(집필, 출판, 유통 등 제 측면)을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공공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측면 역시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아젠다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³¹

한국어문학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을 공공재로 이해했고, 이에 대한 공공재정의 지원을 요청했다. 공공 재정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문학 학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근거해서이다. 현재 한국의 한국어문학 지식은 학계의 연구자에 한정하여 소비되지 않는다. 한국어문학 학술지식은 대학교 도서관의 구독을 통해 대학교 학부생의 교육 및 연구에 널리 활용되며, 고등학교 및 공립도서관의 구독을 통해 중등교육의 교과 및 비교과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상용학술정보업체가 학술논문의 유통을 독점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리포트 거래사이트 등에 재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학술지식의 유통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³² 한국어문학 학술지식을 공공재로서 재인식하고, 그것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도 이익의 증진을 가져온다.

한국어문학 학회는 공론화를 통해 학술지식의 공공성에 대한 확인을

31 반재영 외, 앞의 논문(2020), 805쪽에서 상허학회 회원의 회신.

32 상용학술정보의 리포트거래소 논문 재판매에 대해서는 「리포트 거래사이트, 학생 표절 조장·지식재산권 인식 왜곡」, 《교수신문》, 2020년 6월 17일자; 「지식공유연대 “리포트 거래소는 대학생들 지식 착취의 공모자가 되도록 유도”」, 《경향신문》, 2020년 6월 17일자. 지식공유연대는 학술지식 유통의 왜곡에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을 바라는 서명을 전개하여, 인문사회계열 738명의 연구자 이름으로 「학술 지식정보 유통의 정상화와 학술 정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지식공유연대, 「공지」. <https://knowledgecommoning.org/notice/>(검색일: 2023.11.1.).

거친 후, 학회는 회칙에 따라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로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을 결정했다.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은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OA를 추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³³

오픈액세스 전환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학회는 먼저 오픈액세스 전환을 완료한 다른 학회와의 연대와 경험, 조언을 경험하게 된다. 학회의 연대는 현재 학술제도 안에서 “여러 학회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경험이었고, 연구자 스스로 주체적으로 “공동으로 같이 대처”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험이었다. 연대 및 공동의 대처 과정에서 한국어문학 학회는 그간 연구재단과 공공기관 등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학회가 한국 인문사회 학계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학회와 연구자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구성하게 된다.³⁴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타성에 젖은 세상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필자는 최근에 인문사회학자들의 연구 자율성 회복 운동에 동참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성찰이 그 예이다.³⁵

2020년 7월 지식공유연대 창립총회에서는 한국어문학 분야 15개 학회, 사회과학 1개 학회, 1개 대학 학술지 간행부서 등이 공동으로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오픈액세스 전환을 선언하는 동시에 학술공공성의 회복 및 올바른 학술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지향을 담았다. 한국어문학 학회들은 학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학술지식의 책임감 있는 관리 및 자유로

33 박숙자 외, 앞의 논문(2020), 778쪽에서 박숙자의 언급; 반재영 외, 앞의 논문(2020), 808쪽에서 상허학회, 「공지」(2020.4.23.).

34 박숙자 외, 앞의 논문(2020), 776쪽에서 박숙자의 언급.

35 고찬미, 「때론 순진무구한 용기가 필요하다」, 《한라일보》, 2020년 2월 5일.

운 활용을 들었으며, 올바른 학술문화의 구축을 위해 그림자 노동에 기반한 학회의 관습적 운영을 반성하고 협동에 근거한 학술문화 안착,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책 제안 및 집행 등을 요청했다.³⁶ 이 선언은,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에게 오픈액세스 전환이란 학술지식 유통 주체의 변경을 넘어서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들은 학회, 연구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자기성찰 및 협동의 관계 회복, 한국어문학 학회 운영 등 연구자 문화의 개선 등을 통해 학술지식 생산 및 유통 구조의 재구축, 학술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이념을 지향했다.

2. 지식공유의 실천: 학술정보의 관리, 원문파일과 메타정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결정 이후, 학회는 오픈액세스 전환의 실무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전환 과정은 예상 이상으로 학회 실무자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³⁷ 현재 상용학술정보업체는 원문파일 및 메타정보의 관리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학회가 상용학술정보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종료 당일 0시에 상용업체의 플랫폼에서 학술지의 “논문 및 메타정보가 모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³⁸ 오픈액세스 전환 이후 학회는 이전까지 업체가 제공하던 학술정보 유통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

36 OA 참여학회,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위한 선언」(2020.7.17.), 지식공유연대 창립총회. <https://knowledgecommoning.org/%ec%a7%80%ec%8b%9d%ea%b3%b5%ec%9c%a0%ec%97%b0%eb%8c%80-%ec%b0%bd%eb%a6%bd%ec%b4%9d%ed%9a%8c2020-07-17-%eb%b0%9c%ed%91%9c%ec%9e%90%eb%a3%8c/>(검색일: 2023.11.1.).

37 박배균 외, 앞의 논문(2022), 287쪽에서 천정환의 언급.

38 반재영 외, 앞의 논문(2020), 813쪽.

이때 한국어문학 학회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 논문 원문 및 메타정보를 관리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오픈엑세스 전환을 한국어문학 3개 학회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사이트를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다.³⁹ 현재 학회의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제도에 근거하여 운영이 되며, 매호 간행 시 학술논문의 원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KCI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현실여건 상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학회는 매호 KCI 사이트에 논문과 메타데이터를 정례적으로 등록하며, 등재 이후 상당한 분량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에 KCI 플랫폼을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KCI 사이트를 오픈엑세스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어문학 학회가 한국연구재단에 공문을 발송하면, KCI 사이트는 해당 학술지의 원문을 전체 공개한다. 다만 KCI 사이트는 논문 유통 플랫폼으로 설계 및 구축된 것이 아니라, 학술지 및 논문 평가 관리 플랫폼으로 구축된 것이다. KCI 사이트는 검색 기능이 섬세하지 못하고⁴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 사이트 정보 연동과정에서 데이터 연계가 지체되거나 불안정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엑세스 전환 이후 학회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KCI사이트를 플랫폼으로 운영해야 했다.⁴¹

오픈엑세스 전환 과정에서 한국어문학 학회가 마주하는 더 큰 어려움은 학술원문 및 메타데이터의 정비 및 관리 문제였다. 오픈엑세스 전환 준비를 통해 학회는 그동안 “학회의 이름으로 생산한 학술지식, 즉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논문의 유통을

39 한국어문학 학회가 오픈엑세스 전환을 진행하던 당시에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제공하는 AccessOn 등이 한국어문학 학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40 현재 RISS나 상용업체의 플랫폼에서는 저자명 및 키워드 조합 검색이 가능한데, KCI 사이트에서는 그 검색이 불가능하다.

41 지식공유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는 III장 3절에서 다시 논의한다.

상용업체에 일임한 결과 “학회는 자신의 논문에 대해 무지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오픈액세스로 학술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학회는 “논문 메타정보는커녕 학술지 목록” 역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했다.⁴² 한국어문학 분야의 학회는 등재 이전의 학술지의 논문 원문파일과 메타데이터 역시 정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등재 이후 학술지의 원문파일과 메타데이터는 KCI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또한 상당했다.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학회는 창간호로부터 최신호에 이르는 학술지의 원문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금 정리해야 하게 된다.

원문파일과 메타데이터의 확보는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규모의 노동과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작업이었다.⁴³ 그나마 학회가 원문 파일을 확보한 학술지 발간분은 원문 파일 제작 업무를 상대적으로 덜 수 있지만⁴⁴, 학회가 원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학회는 우선 학술지 원본부터 확보해야 한다. 2020년 오픈액세스 전환을 완료한 한국여성문학 학회, 대중서사학회, 상허학회는 1990년대에 창립하여 30여 년간 운영된 학회로 학회의 역사가 아주 긴 편은 아니었음에도 학술지 원본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어문학 학회 중에는 1950년대에 창립하여 역사가 70년이 넘는 학회도 있기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회에게 학술지 원본 확보는 큰 난관이다. 학회는 학회원에게 학회지 소유 여부를 문의하거나 도서관 소장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입해야

42 박숙자 외, 앞의 논문(2020), 776쪽에서 장문석의 언급.

43 학술지 60여 권의 유통을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한국어문학 분야의 한 학회의 경우, 3명의 실무자가 3개월간 작업을 했으며, 총 200여 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44 학술지의 연구재단 등재를 위해 학회는 KCI 사이트에 논문 파일의 원문을 등록한다. 따라서 이전에 학회가 KCI 사이트에 올렸던 등재 이후의 논문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학회는 KCI 사이트의 원문 파일을 활용할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파일의 누락, 편집 전 한글파일 등록 등의 문제를 발견하여 KCI 사이트의 원문을 바로 활용하지 못했다.

한다. 학회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입수한 학술지 원본을 전자 파일로 제작하는 데에는 다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한국어문학 학회는 KCI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원문 파일 및 메타데이터와 실물 학술지 사이의 교차 검토 또한 수행해야 한다. 검수 과정을 통해 한국어문학 학회는 기존에 KCI 사이트에 정리한 메타데이터에 의외로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⁴⁵ 상용학술정보업체는 메타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지만, 학회는 KCI 사이트 업로드 이후 다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문 파일과 메타데이터는 인쇄본으로 출판하던 학술지를 웹상에 서비스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간 한국어문학 학회는 논문의 전자파일과 메타데이터의 제작 관리를 비가시화했다. 학회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할 논문을 결정했지만, 논문 게재가 결정된 이후의 과정은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논문 저자로부터 원고 최종 파일을 받아서 출판사와 오가면서 논문 파일을 제작하고 KCI 사이트에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학술지 편집간사의 마무리 업무 정도로 이해되었고, 학술지 파일 및 메타데이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학회 임원들, 심지어 편집위원들도 그 업무에는 무지”한 상황이 발생한다. 오픈액세스 전환은 그동안 존재했지만 한국어문학 연구자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지 못한 논문 파일과 메타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가시화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어문학 학회는 논문 파일과 메타데이터가 “사실은 무척 중요한 학술정보이자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임을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학회의 책임있는

45 오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논문 항목의 중복 입력 혹은 누락, 면수 정보의 오류 혹은 누락, 논문 부제 정보의 누락, 열쇳말의 일부 누락 등이 그것이다. 비교적 단순한 오류로 보이지만, 실제 학술지 수집 권에 실린 논문 수백 편의 오류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⁴⁶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에게 지식공유의 실천은 그간 편집간사의 업무로 비기사회했던 지식생산물인 “논문원문과 메타데이터를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고 학회가 독립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⁴⁷

현재 한국어문학 3개 학회는 기존 상용학술정보업체가 제공했던 논문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오픈액세스 전환 이후에도 누락 없이 제공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⁴⁸ 이후 보다 더 많은 학회가 오픈액세스로 전환한다면, 한국어문학 학계는 학회가 생산한 학술지식을 어떠한 형식으로 스스로 관리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현재 학회는 KCI의 원문파일 형식 및 메타데이터 항목을 준용하지만, 그것은 등재지의 관리를 위해 고안된 데이터 형식이다.

이 점에서 한국어문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원문 파일 형식 및 메타데이터 항목이 학회와 연구자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데 적합한 형식인지, 학회와 연구자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하다. 학회에서 역할이 애매했던 직책인 정보 이사나 홍보이사 등이 명실상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회 운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어문학 분야 학회의 연합체를 구축하여, 공동의 논의장을 만들고 그 논의 결과를 KCI 사이트 등 공공 플랫폼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에게 지식공유의 실천이란 그 이전까지 상용 학술정보업체에 미루어 두었던 학술지식의 생산과 관리를 학회가 주체적으로

46 박숙자 외, 앞의 논문(2020), 782~783쪽에서 이해령의 언급.

47 이해령, 앞의 논문(2020.7.17.) 참조.

48 현실적으로 학회가 누락 없이 원문 및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회가 오픈액세스 전환 이전 모든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한, 며칠에서 한두 달 정도의 논문 서비스 공백은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오픈액세스 전환 학술지를 대상으로 논문파일 제작 지원을 수행 중인데, 상용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계약 종료 이후에 파일 제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어문학 학회는 상용학술정보업체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여러 학회가 협업하여 연구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지식 생산, 관리, 공유 모델을 재구축할 필요성을 발견했다.

Ⅲ. 한국학 지식공유의 새로운 지평과 쟁점

한국어문학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2020년 3개 학회 전환 이후 다른 학회에서 전환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전환이 확산되지 못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오픈액세스 전환의 실제 과정에서의 재정 및 인력의 투입이 상당수 학회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문학 학회들은 재정이 열악하며, 학회 수가 많은 만큼 오픈액세스에 대한 정보 역시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다.

보다 많은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가 오픈액세스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문학 학회가 오픈액세스를 통해서 발견한 학술지식의 관리 및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 및 실천적 과제를 충분히 공론화하고 공동으로 안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오픈액세스 전환을 계기로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가 발견한 지식공유의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학 지식공유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서는 학술지식 생산의 토대로서 그림자 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원, 연구자의 플랫폼과 새로운 학술 형식이라는 질문 등의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술지식의 공공성과 그림자 노동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는 오픈액세스 전환을 통해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공계열의 연구와 달리, 인문사회 계열인 한국어문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자 한 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물은 연구자 한 명이 집필한 ‘논문’의 형식으로 출판된다. 하지만 학술지식은 이전에 축적된 학계 공통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산된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해당 학술 영역의 연구 주제, 대상, 방법 등 ‘연구 지평’의 규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한다. 기존지식과의 역동적인 연관 속에서 연구자는 기존의 지식을 심화 및 확장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재구성한다.⁴⁹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술지식의 생산 및 유통이 어떠한 노동과 물질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학술논문 원문 파일 및 메타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학술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이란 온전히 추상적인 지식의 생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술논문 파일과 메타데이터라는 구체적인 형식과 물질성을 통해 생산된다. 학술지식이 논문 파일과 메타데이터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편집간사, 교정자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오픈액세스 전환 이후 학회의 학술지식 관리 및 유통에는 학회 총무이사, 총무간사, 정보이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는 오픈액세스 전환을 통해 ‘나의 통찰과 연구로 혼자 작성한 논문’이라는 학술지식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여러 학술주체의 지식과 노동이 개입하면서 만들어 낸 지식과 그 표현 형식으로

49 박서현, 앞의 논문(2020c), 745~748쪽.

서 논문과 메타데이터'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학술행사, 편집 과정의 연락과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총무간사 등 대학원생 간사의 그림자 노동 역시 가시화하게 된다.

대학원생 간사의 그림자 노동은 학술영역별로 그 성격과 규모가 상이하다. 한국어문학 분야의 경우, 학회의 실무자를 간사로 부르며 대개 박사과정 수료 단계의 대학원생이 맡는다. 대부분의 학회는 총무간사 및 편집간사를 운영하며, 이들은 총무이사 및 편집이사와 함께 학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학회 학술대회 및 학술지 지원사업은 공식적으로 인건비 항목을 지출하지 못하며, 간사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온전히 학회가 감당해야 한다. 학회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열악한 한국어문학 학회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규모의 급여를 받으면서 학회 실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문학 학회는 대학원생 간사들에게 노동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 주지 못하면서, 동시에 학회의 주체로서 존중하지 않았다. 대학원생 간사들은 학회 임원들이 “자신이 심부름꾼 정도로만 여겨질 뿐, 학회에 기여하는 학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상황을 비판한다.⁵⁰

대학원생 간사의 업무를 비가시적인 ‘그림자 노동’의 영역에 두지 않고 그들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 및 의미를 학회 회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을 학회 임원 “여럿이 편집간사가 되”는 경험이라고 정리한 언급을 중요하다.⁵¹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논문 파일 및 메타데이터의 제작 및 관리를 대학원생 간사에게 미루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학회 임원 및 회원 또한 공동으로 그 업무에

50 장문석·정우경·정하나·최민지·홍덕구, 「'연구자의 ()':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자기민족지」, 『상허학보』 66(2022), 249~250쪽.

51 이해령, 앞의 논문(2020.7.17.) 참조.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 간사의 업무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것 역시 물론이다. 개별 학회의 재정 건전화도 필요하며,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지원 역시 필요하다. 한국어문학 학회 공동으로 나아가 인문계열 학회 공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어문학 분야의 학술지 공동 출판 가능성 등 새로운 대안적 실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⁵²

2.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원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는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플랫폼, 학술논문, 메타데이터 관리 등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한국어문학 학계의 열악한 재정과 기술적 경험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여러 공공기관은 학회의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은 한국어문학 학회의 현실적인 필요와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다.

학회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은 중복되거나 혹은 편중되어 있다. 이 문제는 플랫폼의 경우를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다수의 기관은 학술논문 제공 플랫폼을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5종 이상의 학술논문 제공 플랫폼이 구축되었지만, 중복 지원으로 기능상 큰 차이가 없어서 학회에 크게 유용하지 못했다. 중복 지원이 투입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요청했지만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52 동일 학술영역 학회의 학술지 공동 출판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대해서는 정경희·이재운, 「국내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2023), 286~288쪽 참조.

영역도 있다. 학술지 논문 투고 시스템이 그것이다. 현재 한국어문학 학회에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JAMS는 독보적인 채택률을 갖는다. 하지만 JAMS의 기능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 학회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구득할 수 있는 유일한 투고시스템 및 플랫폼이 JAMS였기에 널리 확산된 것이었다. JAMS는 기능이 불편하고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다.

또한 한국어문학 학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역시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 AccessON 및 논문 심사·출판 시스템 ACOMS-KPubS의 존재는 현재까지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어문학 연구자의 상당수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충분히 익숙하지 못하기에, 학회에서 현실적으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어문학 분야의 학회 일정 정도 이상이 JAMS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자, 한국어문학 분야의 다른 학회 역시 JAMS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했다.

두 번째로 지원의 과정에서 학회의 필요보다 공공기관의 편의를 앞세우기에 적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픈액세스 전환 학술지의 전자파일 제작을 지원하는데, 한국어문학 학회는 학술지 원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했다. 학회는 학술지 간행시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은 학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 전자파일 제작 부서 및 학술지 원본 관리 부서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학회에게 학술지 원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학술지 논문 메타데이터 제작 과정에 대한 지원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

는 것은, 공공기관이 한국 학술정책 및 지원을 편의적으로 결정하여 하향식으로 전달했던 한국 학술장의 구조적 특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회 및 연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모아서 긴요한 지원을 연구기관에 요청하고 지원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어문학이라는 학문 분야, 나아가 인문사회 계열 전체 등 다양한 층위의 학회 사이의 연대 혹은 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학회 공동의 현안을 공유하고 그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지원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⁵³

이미 한국어문학 학회는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자의 요청을 제시하여 KCI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KCI 플랫폼은 심사를 거친 정규 논문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서평, 대담, 자료 소개, 학술행사 지상중계 등 심사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의 관리와 유통에는 소극적이었다. KCI 사이트의 데이터와 RISS 사이트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비정규논문을 제외하기도 했다. 한국어문학 학회의 공식적인 요청과 설득으로 한국연구재단은 KCI 플랫폼에서 비정규 논문을 정규 논문과 동일하게 운영했다.⁵⁴

53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지원이 시혜적이며 일방적인 보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문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것으로 상당 기간 전문적 수련을 거친 연구자가 주체가 되지만 시민의 동참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모두가 공공성의 견지에서 학문 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학문 발전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제안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김명환, 「국내 학문 생태계의 현실과 혁신 방향: 지식의 공공성, 저작권, 오픈 액세스」, 박서현·정경희(편), 앞의 책(2022), 126쪽. 한국어문학 학술정보가 공공성을 갖춘 상태로 유통되는 것은 국가 전반의 문화 및 지식 수준의 향상을 가져온다. 이 점에서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연구자의 요청과 공공기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지원 구조의 전환’이다.

54 이혜령, 앞의 논문(2020.7.17.) 참조.

팬데믹 이후 2021년 상반기 인문사회 계열 학회는 학술장의 변화를 경험했다. 2021년 진행한 한국연구재단 정책과제에서 여러 전공의 학회 임원들은 연구영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술 상황에서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회의 현실적 필요에 근거한 새로운 지원의 기준과 지원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했다.⁵⁵

3. 연구자의 플랫폼과 새로운 학술 형식이라는 질문

한국어문학 학계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픈엑세스는 상용업체의 플랫폼에서 공공기관의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정도의 다소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오픈엑세스 선언’에서 제안한 오픈엑세스는 웹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학술지식의 유통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KCI 플랫폼의 제한된 기능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어문학 연구의 성격에 맞는 학술지식 유통 형식 및 플랫폼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엑세스 플랫폼은 단순히 이미 출판된 논문을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경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출판 건수, 논문 검색 시간, 논문 한 편당 참고문헌 건수 등 학술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55 정책 과제 연구팀은 새로운 지원의 지표를 공공성 지표(공유의 원리, 공개의 원리), 지속성 지표(학술주체의 전문성, 윤리의식의 강화), 자율성 지표(학술지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환경변화에 대한 확장성과 회복성)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공동의 논의에 근거한 연구자의 현실적 필요를 받아 안으면서도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지표이다. 박숙자·정경희·박배균·천정환·고찬미·장문석·조은경,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2020-58) 보고서(2021), 9쪽; 박숙자, 「그럼에도,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한국연구재단 정책 과제를 마치며」, 박서현·정경희(편), 앞의 책(2022), 204~210쪽 참조.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⁵⁶

‘부다페스트 오픈엑세스 선언’은 자유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학술지 완전공개와 셀프아카이빙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셀프아카이빙은 연구자 개인의 아카이브, 대학 및 학회, 주제 분야의 리포지터리 등을 통해, 학술논문 원성본뿐 아니라 완성 전후의 프리프린트나 포스트프린트 형식의 학술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셀프아카이빙은 연구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면서, 학술지식의 탄력적인 공유를 위한 한 방법이다. 연구재단의 등재지 제도 및 PDF 파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술지식 생산 및 유통에 셀프아카이빙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자신이 생산한 지식을 셀프아카이빙과 OA 출판 등을 통해 유통하여 ‘지식공유의 공공성’을 창출할 수 있다.⁵⁷ 자유로운 학술지식의 공유와 활용을 지향하는 한국어문학 플랫폼을 통해 학술지 논문의 완전공개 및 셀프아카이빙 등 다양한 학술지식 공유의 형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PDF 파일 형식은 완결된 학술지식을 논문이라는 편집 및 수정 불가능한 형식으로 고정하여 웹에 유통하는 형식이다. PDF 파일 중심 학술논문 유통 구조에서 연구자는 생산자로서 학술지식의 발신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은 수용자로서 연구자가 이미 완성하여 생산한 학술논문을 파일 형태로 내려 받아 읽는 소비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 고정은 학술지식의 자유로운 활용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며, 시민이 생산하는 지식이 다시금 학계로 환류하기에 어려웠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도 생산자가 완결한 지식을 수용자가 발신하는 것 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학술지식의 생산 및 유통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56 표순희·권나현·이정연·문선웅, 「국가오픈엑세스플랫폼 논문검색시스템의 수요와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2022), 313~334쪽 참조.

57 박숙자, 앞의 논문(2020), 199쪽.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AccessON의 경우 학술지 논문 완전공개와 셀프아카이빙을 모두 지원하며, 학회 및 연구자는 이를 통해 상당한 사용가치를 얻을 수 있다.⁵⁸ 또한 같은 기관의 ACOMS-KPubS에서는 XML기반의 온라인저널출판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 중이다.

한국어문학 계열의 연구자 중 일부 역시 이와 같은 새로운 학술지식 유통을 위한 모색에 공명하면서, 인문학 지식 생산 및 유통의 기본 형식을 아날로그 환경 기반의 선형적 글쓰기 중심의 인문학 성과 공유를 디지털 환경 기반의 조합적 글쓰기로 변화할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⁵⁹ 구체적으로는 위키(Wiki) 및 XML 형식을 활용한 학술지식의 생산 및 공유 플랫폼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위키가 가진 웹 플랫폼의 속성을 활용하여 웹상의 다양한 자원을 학술적 글쓰기로 포괄하는 동시에, 위키가 가진 협동과 공유 플랫폼의 성격을 활용하여 연구자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학술지식 생산 및 유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⁶⁰ 나아가 위키의 정보를 XML 형식으로 변환하여 데이터로 구축하여 논문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지식의 공유를 기도하는 것이다.⁶¹

58 권나현·표순희, 「오픈엑세스를 위한 리포지터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 분석과 경제적 가치 측정」,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2022), 179~203쪽 참조.

59 아날로그 환경 기반의 선형적 글쓰기와 디지털 환경 기반의 조합적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는 정과리, 『문명의 배꼽』(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177쪽; 빌렘 플루서(저), 윤종석(역),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서울: xbooks, 2015), 92쪽, 127쪽, 233쪽, 237쪽, 246쪽; 이시다 히데타카(저), 윤대석(역),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서울: 사회평론, 2017), 218~219쪽; 김지선·장문석·류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2021), 372~375쪽 참조.

60 위키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의 인문학 글쓰기와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온라인에서 수행한 사례로는 홍종욱·김도민·강수연·홍수현, 「복합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인문논총』 78(1)(2021), 13~41쪽; 장문석·김윤진·이은지·송가배·고자연·김지선,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의 공동생산: 위키 플랫폼과 <한국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편찬」, 『인문논총』 78(1)(2021), 75~124쪽.

오픈액세스는 지금 한국 인문사회 학계에서 학술지식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한국어문학 학회에게 학술지식의 유통과 그 플랫폼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전환을 과제로 남긴다. 새로운 학술지식의 형식과 플랫폼은 연구자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양식인 동시에 시민과의 참여를 통해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IV. 결: 한국학의 ‘열린 공공성’을 향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어문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과정 및 ‘열린 공공성’의 지향에 주목하여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은 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이 비경합성을 가지는 재화이며, 그것은 비배제성의 이념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어문학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학술지 출판을 오픈액세스로 전환했다. 한국학 지식공유의 실천은 학회가 학술지식의 생산 및 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어문학 학회는 여러 학회가 협업하여 연구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 관리, 공유 모델을 재구축할 필요성을 발견했다. 나아가 한국학 지식공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학술지식 생산의 토대로서 그림자 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원, 연구자의 플랫폼과 새로운 학술 형식이라는 질문 등의 쟁점을 보다 전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 지식공유라

61 천정환·박서현·장문석·박지훈·류인태, 『인문학과 지식공유: 시민 참여 모델의 개발』(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94~123쪽; 류인태, 「인문학술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한 시론」, 『한국학』 45(2)(2022), 125~168쪽 참조.

는 이념과 실천은 학술지식의 공공성과 연구자 주체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한국 학술장 및 학술문화의 재구조화라는 과제를 요청한다.

OA는 단지 논문에 대한 접근을 개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누적된 우리 연구(자) 문화의 잘못된 관행과 비주체성을 고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⁶²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에서 한국학 지식공유는 학술지 논문 오픈액세스 출판을 통한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를 넘어서, 지난 20년간 한국 인문사회 계열 학계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학술장의 구조와 연구자 문화를 연구자가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학 지식공유의 실천은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의 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가 제기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자 스스로가 생산한 지식을 유통하면서 ‘민주적 감성’을 키우고, ‘삶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제⁶³, 연구자, 대학, 학회,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학술장을 “좀 더 합리적이고 공생 가능한 공간”으로 재편하는 과제⁶⁴, 나아가 한국 학술장을 시민과 소통하는 학술장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 공유의 형식을 개발하는 과제 등이다.⁶⁵

62 반재영 외, 앞의 논문(2020), 810쪽에서 상허학회 회원의 회신.

63 박숙자, 앞의 논문(2020), 209쪽; 박서현, 앞의 논문(2020c), 761쪽.

64 연구자의 다양한 주체성에 대한 고려 및 학계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공생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필요에 대해서는 강수영 외, 앞의 책(2022), 94~97쪽, 228~229쪽에서 김보경의 언급 참조.

65 이 과제는 ‘침묵의 공장’에 머문 한국어문학 학계가 새롭게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강명관의 언급과, 학술장을 ‘열린 공간’으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한 전준하의 언급과도 공명한다. 강명관, 앞의 책(2013), 124~127쪽; 강수영 외, 앞의 책(2022), 233쪽.

지식커먼즈로서의 학술지식을 일종의 ‘열린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학술지식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학술지식이 이와 같이 열린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라는 점이 학술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오픈액세스의 실천과 함께 학술지식의 생산을 보다 더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창안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⁶⁶

한국학 지식공유는 ‘열린 공공성’이라는 이념을 지향한다. 나아가 한국학 지식공유는 사회적 협동에 근거하여 생산한 학술지식을 연구자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인문학적 실천이다.

66 박서현, 앞의 논문(2020c), 754~755쪽.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명관, 『침묵의 공장』. 서울: 천년의상상, 2013.
- 강수영·김보경·유현미·이승희·조승희·전준하·현수진·이우창, 『한국에서 박사 하기』. 서울: 북저널리즘, 2022.
- 박서현·정경희(편), 『지식을 공유하라』. 서울: 빨간소금, 2022.
- 빌렘 플루서(저), 윤종석(역),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xbooks, 2015.
- 사이토 준이치(저), 윤대석·류수연·윤미란(역), 『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음, 2009.
- 엘리너 오스트롬·살렛 헤스(편), 김민주·송희령(역), 『지식의 공유』. 서울: 타임북스, 2010.
- 이시다 히데타카(저), 윤대석(역),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 서울: 사회평론, 2017.
- 정과리, 『문명의 배꼽』.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 천정환·박서현·장문석·박지훈·류인태, 『인문학과 지식공유: 시민 참여 모델의 개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2. 논문

- 권나현·표순희, 「오픈엑세스를 위한 리포지터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 분석과 경제적 가치 측정」.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022, 179~203쪽.
- 권재현, 「학술지 시장의 경제적 구조와 국내 오픈엑세스 운동」. 『법경제학연구』 17(3), 2020, 529~530쪽.
- 김규환·정경희,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특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3), 2017, 251~267쪽.
- 김지선·장문석·류인태,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2021, 371~419쪽.
- 류인태, 「인문학술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한 시론」. 『한국학』 45(2), 2022, 125~168쪽.
- 류준필,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조선문학사' 인식과 그 지칭학적 함의: 자국(문)학 형성의 맥락에서」. 『한국학연구』 32, 2014, 93~124쪽.
- 박서현,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생산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분야를

-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9(1), 2020a, 187~211쪽.
- _____,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대안적 공유에 대하여: 인문사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1(2), 2020b, 3~40쪽.
- _____, 「지식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의 사회적 가치: 열린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재. 『상허학보』 60, 2020c, 743~765쪽.
- _____, 「한국 학계에서 지식 커먼즈의 생산과 공유에 대하여」, 최현·장훈교·윤여일·박서현(편), 『공동자원의 영역들』. 과천: 진인진, 2019, 249~282쪽.
- 박숙자, 「학술지식은 커먼즈다: 지식공유연대와 OA 플랫폼. 『문화과학』 101, 2020, 193~209쪽.
- 박숙자·이혜령·장문석, 「OA라는 형식이 학회에 제기한 질문: 지식공유 대담(1). 『상허학보』 60, 2020, 767~794쪽.
- 박숙자·정경희·박배균·천정환·고찬미·장문석·조은정,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2020-58) 보고서, 2021, 1~164쪽.
- 반재영·김유동·장문석, 「상허학회는 Open Access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A 실무, 서툰일곱 걸음. 『상허학보』 60, 2020, 795~825쪽.
- 서호철, 「학회 없는 학술지, 포괄적 한국학의 꿈: 『한국학보』의 경우. 『사이間SAL』 20, 2016, 47~83쪽.
- 이재윤·정경희, 「해외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 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3), 2020, 301~326쪽.
- 장문석·김윤진·이은지·송가배·고자연·김지선,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의 공동생산: 위키 플랫폼과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편찬. 『인문논총』 78(1), 2021, 75~124쪽.
- 장문석·정우경·정하나·최민지·홍덕구, 「연구자의 ():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자기민족지. 『상허학보』 66, 2022, 225~269쪽.
- 정경희, 「국내 학술지 웹 DB 구독료 현황과 오픈엑세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2008, 365~382쪽.
- _____,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엑세스 출판 전환 과정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2020, 205~227쪽.
- _____, 「KCI 등재지의 CCL 적용 현황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2), 2023, 233~249쪽.

- 정경희·김규환,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4), 2016, 269~291쪽.
- 정경희·이재윤, 「국내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2023, 271~291쪽.
- 정경희·이재윤·정은경·최상희, 「한국연구재단 오픈액세스 정책 실행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4), 2020, 255~286쪽.
- 표순희·권나현·이정연·문선웅,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 논문검색시스템의 수요와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2022, 313~334쪽.
- 홍종욱, 「보성전문대학교에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역사학보』 232, 2016, 283~325쪽.
- 홍종욱·김도민·강수연·홍수현,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인문논총』 78(1), 2021, 13~41쪽.
- Bergstrom, Carl T., & Bergstrom, Theodore C., "The Costs and Benefits of Library Site Licenses to Academic Journal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01, No. 3, 2004, pp. 897-902.
- Bergstrom, Theodore C., "Free Labour for Costly Journal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5, No. 4, 2001, pp. 183-198.

3. 웹사이트

-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 <https://knowledgecommons.org/manifesto/>(검색일: 2023.11.1.).
- 이혜령, 「한국여성문학회, OA 이렇게 한다」(2020.7.17), 지식공유연대 창립총회. <https://knowledgecommons.org/%ec%a7%80%ec%8b%9d%ea%b3%b5%ec%9c%a0%ec%97%b0%eb%8c%80-%ec%b0%bd%eb%a6%bd%ec%b4%9d%ed%9a%8c2020-07-17-%eb%b0%9c%ed%91%9c%ec%9e%90%eb%a3%8c/>(검색일: 2023.11.1.).
- 지식공유연대, 「공지」. <https://knowledgecommons.org/notice/>(검색일: 2023.11.1.).
- OA 참여학회,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위한 선언」(2020.7.17.), 지식공유연대 창립총회. <https://knowledgecommons.org/%ec%a>

7%80%ec%8b%9d%ea%b3%b5%ec%9c%a0%ec%97%b0%eb%8c%80-%ec%b0%bd%eb%a6%bd%ec%b4%9d%ed%9a%8c2020-07-17-%eb%b0%9c%ed%91%9c%ec%9e%90%eb%a3%8c/(검색일: 2023.11.1.).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주요 학술정보기관 오픈액세스 공동 선언 추진」(2021. 8.17.),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id=39768&schBcid=normal0302>(검색일: 2023.11.1.).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2002.2.14.). <https://www.budapestopen-accessinitiative.org/read/>(검색일: 2023.11.1.).

4. 기타

고찬미, 「때론 순진무구한 용기가 필요하다」. 《한라일보》, 2020년 2월 5일.
「지식공유연대 “리포트 거래소는 대학생을 지식 착취의 공모자가 되도록 유도”」,
《경향신문》, 2020년 6월 17일.

「“리포트 거래사이트, 학생 표절 조장·지식재산권 인식 왜곡”」, 《교수신문》, 2020년 6월 17일.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어문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과정 및 ‘열린 공공성’의 지향에 주목하여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과 실천을 살펴보았다. 한국학 지식공유의 이념은 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국어문학 학회 및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이 비경합성을 가지는 재화이며, 그것은 비배제성의 이념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어문학 연구자들은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학술지 출판을 오픈액세스로 전환했다. 한국학 지식공유의 실천은 학회가 학술지식의 생산 및 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어문학 학회는 여러 학회가 협업하여 연구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 관리, 공유 모델을 재구축할 필요성을 발견했다. 나아가 한국학 지식공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기 위해서는 학술지식 생산의 토대로서 그림자 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원, 연구자의 플랫폼과 새로운 학술 형식이라는 질문 등의 쟁점을 보다 전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 지식공유라는 이념과 실천은 학술지식의 공공성과 연구자 주체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한국 학술장 및 학술문화의 재구조화라는 과제를 요청한다.

투고일 2023. 6. 22.

심사일 2023. 8. 25.

게재 확정일 2023. 11. 9.

주제어(keywords) 한국학(Korean Studies),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오픈액세스(open access), 커먼즈(the commons), 공공성(publicness), 주체성(subjectivity)

Abstract

Ideology and Practice of Knowledge Sharing of Korean Studies:
Transition to the Open Access Publishing of the Journal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he Idea of “Open Publicness”
Jang, Moonseok

This study examined the ideology and practice of knowledge sharing of Korean studies, focusing o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the Open Access publishing of the journal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he idea of “Open Publicness.” The idea of knowledge sharing of Korean studies implies the pursuit of academic knowledge as the commons. The Korean society celebrates the idea of knowledge sharing among all citizens based on the ideologie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Accordingly, researcher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ve converted the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to Open Access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academic knowledge. In the process of knowledge sharing, the Korean society independently conducted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academic knowledge. The societi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ollaborated with other academic societies and reconstructed a new knowledge production, management, and sharing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ers. Furthermore, to expand the horizon of knowledge sharing for Korean stud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ssues such as shadow labor as the basis for academic knowledge production, support from public institutions through governance, and questions about researchers’ platforms and new forms of academic knowledge. The ideology and practice of knowledge sharing of Korean studies seek the restructuring of the academic field and culture of Korean studies based on the promotion of academic knowledge and subjectivity of researchers.

